



녹색의 계절, 생명의 숲

이 경 식 < 국립공원협회 회장 >

숲이 우거진다. 녹색의 계절이 다. 절기에 따라, 하늘에 따라, 흐르는 구름과 안개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숲 속의 나무와 계곡의 물과 능선의 바람이 한결같이 기쁨지고 정겹고 풍성하다. 녹색의 계절에 생명의 숲을 바라보는 마음이 평온하다.

우리들의 국립공원은 그 자체가 숲이요, 물이요, 흙이요, 바람이다.

그 중에서도 숲은 자연공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의미기도 하다.

숲이라 함은 단순히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만은 아니다. 숲은 나무와 풀, 곤충과 짐승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의 젖줄이다. 온갖 생명체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물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온상(溫床)이다. 숲은 유기체들이 하나의 동적 평형상태를

이루어 자신의 항상성(恒常性 - Homeostasis - 생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집단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이래 숲은 환경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의 생활이나 문화의 대부분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 숲을 희생시키고 이용해 옴으로써 비롯되고 있다.

숲은 생명이다. 더욱이 전국토의 대부분이 산과 물과 계곡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숲은 언제나 변함없이 겸허하게 그 자리에 무리를 이루며 물과 흙과 바람을 감싸안고 있다. 숲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외경스러운 대상이었지만 점차 식량자원을 얻는 곳이 되었고 사람이 거처하는 터가 되었다. 문명이 발달하여감에 따라 인간 생활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원공급

처가 되었으며 모든 생명지체체계의 기능도 하게 되었다.

지난 4월 시상된 미국의 유명한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의 한 사람은 「숲의 생명성」과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주장해온 남미 콜롬비아 원주민 우와족(族)의 베리타 쿠와루와였다. 우와족은 수백년동안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단절한 채 밀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이고 수상자 쿠와루와는 부족의 대변인이기도 하다.

숲은 인간에게 있어 온갖 지혜의 샘터가 되고 있다. 오늘날 숲의 녹색은 자연환경보전의 상징이자 인간생명존중운동과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은 인간과 사물을 보는 눈을 보다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유지하라는 값진 경구(警句)이다.

한때 전 지구를 뒤덮고 있던 숲은 오늘에 와서 아직도 지표면(地表面)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 전체 생산량의 90%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공해오염을 순화하고 대기과 물순환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완충지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열대우림을 보호 보존하려는 세계의 관심과 일련의 운동은 이 완충

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국립공원의 대종(大宗)은 숲이다. 국립공원은 숲이 있으므로 하여 그곳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은 나라의 대표적인 풍광지로서 자연경관도 빼어날 뿐 아니라 야생동물 및 희귀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 보호가치가 더없이 높은 지역이다. 숲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의 기초이념이 숲의 성자(聖者)로 불리는 존 무어와 미국 환경보호의 선각자적인 대통령 테오도어 루즈벨트에 의해 정립된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원래 그대로 남겨두어라. 조금도 변형하지 말고…: 세월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숲의 생명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제 국립공원의 숲과 물과 흙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지막 환경자산」이다.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이 그야말로 전지구적인 과제로 부각되는 오늘날 자연의 숲과 물과 흙과 하늘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명감과 긍지는 그래서 남다른 것이다. 숲이 우거지는 녹색의 계절에 숲 속에 서서 숲의 의미를 음미하고자 한다. **▲**